



‘손’ 못쓰는 토트넘 (홍민) 팀 운영에 큰 차질

손흥민 종아리 근육 부상 빠져 크리스털 팰리스에 0-3 패배 UEFA 조별리그에도 못 뛰어 “20일 첼시전 출전 위해 노력”

오른쪽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잠시 전열에서 빠진 ‘손세이셔널’ 손흥민(29·토트넘)이 한국시간 20일 새벽 예정된 첼시전부터 그라운드에서 복귀할 전망이다.

영국 런던 지역지 풋볼런던은 14일(한국시간) 토트넘의 부상자 상황을 전하면서 담당 기자와 팬들의 문답을 공개했다.

풋볼런던은 “토트넘은 기분 좋게 이번 시즌을 출발했지만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패배(0-3패) 하면서 망치고 말았다”라며 “에릭 다이어는 크리스털 팰리스전 전반 12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돼

A매치 기간에 다친 손흥민, 스티브 베르흐바인, 라이언 세세네에 이어 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잉글랜드 U-21 대표팀 소집 기간에 다친 올리버 스킵은 회복했지만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브라질 원정에 나선 크리스티안 로메로, 조바니 로셀소, 다비손 산체스는 복귀에 앞서 크로아티아에서 10일 동안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한국시간으로 17일 새벽 1시 45분 프랑스 렌의 로아종 파르크에서 예정된 렌과 2021-2022 유럽축구연맹(UEFA) 콘퍼런스리그 조별리그 G조 1차전을 앞두고 당장 손흥민을 포함해 최소 7명의 선수가 출전하기 어려운 상태다.

손흥민의 부상은 토트넘 전력에도 큰 차질을 주고 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9월 A매치에 소집된 손흥민은 2일 이라크전에 폴타임을 소화했지만 7일 레바논전을 앞두고 오른쪽 종아리 근육 염좌로 출전하

지 못했다.

손흥민은 8일 소속팀으로 돌아갔고, 토트넘을 지휘하는 누누 이스파리투 산투 감독은 손흥민의 상태에 대해 “좋지는 않다(not so well)”라고 밝혔다.

결국 손흥민은 11일 크리스털 팰리스전에 결장했고, 토트넘은 후반 13분 자넷 탕강가의 퇴장 악재까지 겹치며 0-3으로 무릎을 꿇고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이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핵심 전력인 손흥민의 복귀 일정에 관심을 쏟고 있다.

손흥민의 부상 상태는 아직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부상 상태를 전하는 ‘프리미어인저리닷컴’은 손흥민에 대해 ‘종아리 염좌(calf strain)’라고 전하면서 복귀 예정 시점을 예측하지는 않았다.

반면 발목을 다친 베르흐바인의 복귀 예정일은 현지시간 19일로 명시했다. 더불어 자가격리 수칙

때문에 전열에서 빠진 로메로, 로셀소, 산체스의 복귀 시점도 19일로 내다보면서 첼시전 출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렸다.

하지만 손흥민은 부상 발견 이후 충분한 휴식을 볼낸 만큼 17일 렌과 UEFA 콘퍼런스리그 원정보다는 20일 첼시전에 맞춰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풋볼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도 손흥민과 다이어의 복귀 시점을 묻는 말에 “손흥민과 다이어는 첼시전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다이어는 애초 예상보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 둘 다 빨리 회복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토트넘은 이날 SNS 계정을 통해 손흥민의 토트넘 데뷔전 6주년을 기념하는 영상과 사진을 올렸다.

손흥민은 2015년 8월 28일 토트넘에 입단했고, 마침내 그해 9월 13일 선덜랜드를 상대로 데뷔전을 펼쳤다. /연합뉴스

전남, 대전에 1-2 패배 순위싸움에 ‘떡구름’

전남드래곤즈의 원정 무패행진이 중단됐다. 순위 싸움에도 떡구름이 드리워졌다.

전남이 지난 13일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2021 29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1-2패를 기록했다.

앞선 경남전 2-0 승리로 원정 2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렸던 전남의 기록이 중단됐다. 또 3위 대전과는 승점 4점 차로 벌어졌다.

전반 12분 전남이 선취점을 내줬다. 페널티박스 왼쪽 먼 거리에서 공을 잡은 대전 원기종이 그대로 오른발로 슈팅을 날렸다. 원기종이 때린 공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전남 골대 오른쪽을 파고들었다.

전반 24분 전남이 코너리 상황에서 박찬용의 헤더로 상대를 위협했다. 김현욱이 키커로 나서 공을 띄웠고 박찬용이 헤더로 공의 방향을 바꿨다. 아쉽게 공은 옆 그물 맞으면서 득점이 불발됐다.

하지만 4분 뒤 이석현이 아쉬움을 달래는 득점에 성공했다.

상대 수비진에 둘러 쌓인 발로텔라가 힐패스로 이석현에게 공을 내줬고, 중앙으로 이동한 이석현이 원발로 대전 골대를 갈랐다.

1-1로 균형을 맞춘 전남은 전반 35분 김현욱의 원발로 추가골 사냥에 나섰다.

프리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선 김현욱이 원발로 공을 때렸다. 매섭게 대전 골대로 향한 공이 아쉽게 상대 골키퍼 김동준의 호수비에 걸렸다.

전반 40분에는 전남이 큰 위기를 넘겼다.

대전 김승섭의 슈팅이 골키퍼 맞고 뒤로 흘렀다. 전남의 빈 골대로 공이 굴러가기 시작했고 급히 달려간 장순혁이 어렵게 공을 견어내면서 전반전이 1-1로 마무리됐다.

전남은 후반전 승리를 위한 공세에 나섰다.

후반 14분 김병오의 크로스를 받은 김현욱의 슈팅이 아쉽게 골대 위를 지나쳤고, 후반 19분 김병오의 슈팅은 상대 골키퍼에 막혔다.

후반 막판에는 대전의 공격이 이어졌다.

그리고 후반 43분 대전 바이어가 왼쪽에서 보낸 낮은 크로스가 반대쪽에 있던 이현식 앞으로 향했다. 이어 이현식이 오른발로 골을 밀어 넣으면서 전남의 원정 무패 기록이 ‘23경기’에서 마무리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블게주’ 45호 홈런 ML 1위 ... 오타니 제치고 아버지 넘었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토론토)가 14일(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홈 경기 탬파베이 레이스전에서 시즌 45호 홈런을 터트린 후 환호하고 있다. 게레로는 시즌 44홈런을 기록한 오타니와 ‘괴수’로 불린 아버지 블라디미르 게레로 시니어의 시즌 최다 홈런(44개)도 넘어서었다. /연합뉴스

‘호랑이 군단’ 희비 교차...유민상 등 4명 엔트리 등록

최형우 득녀·이창진 부친상 이진영·이우성·권혁경 1군으로



‘호랑이 군단’에 희비가 교차했다.

KIA 타이거즈는 14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이날 외야수 최형우와 이창진이 엔트리에 말소됐다. 두 선수 모두 경조 휴가를 냈다. 최형우는 둘째 딸을 얻었고, 이창진은 부친상을 당했다. 반가운 소식과 안타까운 소식이 동시에 전해진 이날 4명의 선수가 새로 1군에 이름을 올렸다.

전날 부상으로 포수 이정훈과 투수 이의리도 말소됐던 만큼 최형우, 이창진의 빈 자리까지 모두 4

자리가 채워졌다.

내야수 유민상과 함께 외야수 이진영·이우성 그리고 포수 권혁경이 엔트리에 등록됐다.

가장 눈길을 끈 인물은 권혁경이다.

권혁경은 지난 7월 11일 KT와의 홈경기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른 ‘고졸 루키’다.

이 경기는 권혁경의 화제의 데뷔전이었다.

이날 KIA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악재를 만났다.

경기 전 포수 한승택이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엔트리에 빠졌고, 대신 권혁경이 처음 1군에 풀업됐다.

그리고 김민식이 선발 출장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김민식이 포수 마스 크를 썼던 두산전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역학조사 결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경기 시작 직전 김민식이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된 것이다.

2군 휴식일을 보내고 있던 이정훈이 급히 챔피언스필드로 달려왔지만, 몸을 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결국 신인 권혁경이 선발로 프로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이날 입단 동기인 이의리와 ‘루키 배터리’를 구성한 권혁경은 1회 수비에서 황재균의 도루를 저지하는 등 ‘깜짝 활약’을 하며 화제의 인물이 됐다. 기대감을 키웠던 권혁경이지만 기세는 잊지 못했다.

12일 KBO가 두산·NC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반기 조기 중단을 결정하면서 권혁경은 단 한 경기 출장에 만족해야 했다.

권혁경은 이번에는 ‘부상 악재’ 속 두 번째 1군 경험을 하게 됐다.

이의리의 부상 악재를 만난 마운드에서는 장민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12일 NC와의 더블헤더 2차전 선발로 나왔

던 이의리는 왼손 중지 손톱이 깨지면서 엔트리에 서 말소됐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투구폼이나 때 커니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말소를 통해 휴식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단 15일 예정된 롯데와의 더블헤더를 김현수와 이민우로 치르기로 한 윌리엄스 감독은 장민기를 지켜보고 있다.

장민기는 이날 NC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2이닝을 던지면서 주말 선발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했다. 전상현도 1이닝을 소화하면서 복귀를 위한 재시동을 걸었다.

한편 최형우는 15일 엔트리에 재합류할 예정이다. 최형우가 자리를 비운 14일에는 터커가 지명 타자로 대신 자리를 했다. 그리고 옆구리 부상으로 고전했던 나지완이 지난 6월 26일 키움전 이후 처음 좌익수로 선발 출장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LPGA 투어 대상 포인트

박민지·장하나 치열한 경쟁



박민지

장하나

박민지(23)와 장하나(29)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상 포인트와 평균 타수 부문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021시즌 KLPGA 투어는 박민지가 상반기에 6승을 쓸어 담으며 일찌감치 독주 체제를 굳히는 듯했다.

박민지는 12일 끝난 KB금융 스타 챔피언십 공동 4위로 시즌 상금 13억 3330만원을 벌며 KLPGA 투어 사상 역대 한 시즌 최다 상금 신기록을 세웠다.

선수의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해 정하는 대상 포인트 부문과 평균 타수 부문에서는 박민지와 장하나가 선두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먼저 대상 포인트는 박민지가 556점으로 1위, 장나는 503점으로 2위다.

평균 타수는 장하나가 69.712타, 1위로 앞서 있고 69.982타의 박민지는 2위에 올라 있다.

17일부터 사흘간 충북 청주시 세종실크리버 컨트리클럽(파72·6627야드)에서 열리는 OK저축은행 박세리인비테이셔널(총상금 8억원)은 하반기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 부문 선두 경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대회 우승자에게는 대상 포인트 60점을 주기 때문에 장하나가 우승할 경우 박민지가 10위 밖으로 밀리면서 단숨에 대상 포인트 부문 1위에도 오를 수 있다.

반대로 평균 타수의 경우 둘의 격차가 0.27타 정도여서 역시 박민지가 이번 대회에서 장하나보다 적은 타수를 치면 추격 또는 추월이 가능하다.

/연합뉴스